지배구조·생산적 금융·스테이블코인… 3대 현안 '시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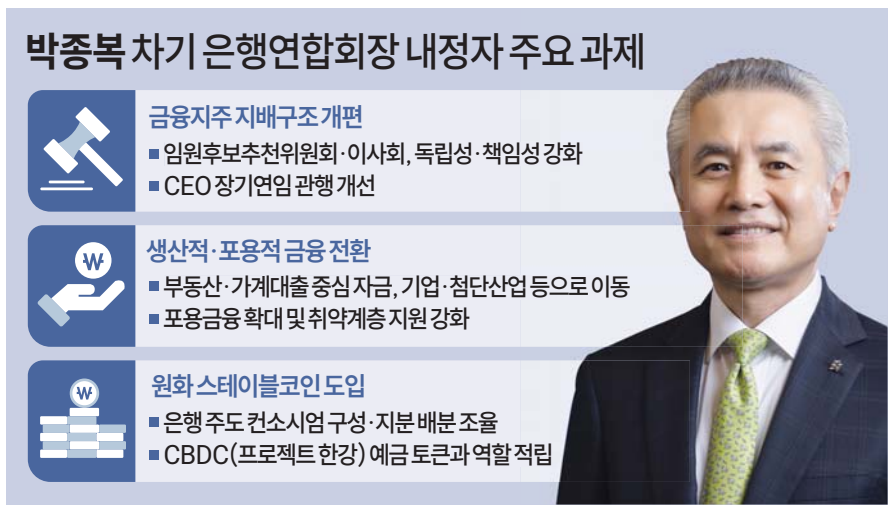
박종복 차기 은행연합회장

내일 사원총회 거쳐 회장으로 선임
금융당국-은행권 관계조율 관건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은행권의 주요 현안을 풀어갈 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과 생산적 금융 전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 내정자를 사원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박 내정자는 26일 사원 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정식 선임된다.

박 내정자가 풀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대응이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독립성·책임성 강화, 은행지주 최고 경영자(CEO)의 장기연임 관행 개선, 기관투자자의 주주역할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편등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CEO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의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금지하는 한편, 은행지주 CEO 선임 시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에 나선 만큼 박 내정자는 정책 취지에 발맞추면서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집중된 금융권의 자금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중소기업, 지역산업 등으로 돌리는 금융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 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등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도 내놨다.

은행권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기업대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부실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내정자는 은행별 부담을 조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이밖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대응도 박 내정자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이 발행 주체로 나서는 만큼 향후 컨소시엄 구성과 지분 배분, 시장 주도권 확보 등을 둘러싼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서 활용하는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간 역할 정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과거 은행연합회 이사 시절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라며 "은행권 전반을 아우르며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증시 변동성에 이익 급감… 캐피탈사 '비상'

신한, 3분기 투자이익 841억 23%↓
JB우리, 유가증권이익 98% 급감소
하나, 매매평가 손실 전분기의 9배
"본업 경쟁력 강화, 순익 방어해야"

유가증권 투자로 수익이 커졌던 캐피탈사의 수익에 비상등이 켜졌다. 증시 활황에 '이익 특수'를 누리던 캐피탈사들의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다.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유가증권 투자이익이 급감했다.

24일 각 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의 3분기 유가증권 투자이익은 841억원으로 잡계됐다. 전년 동기(1092억원) 대비 23% 감소했다. JB우리캐피탈은 3분기 유가증권이익은 8억원이다. 전년 동기(401억)와 비교하면 무려 98.1% 급감했다.

하나캐피탈은 3분기 매매평가이익 마이너스(-)1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17억원) 대비 적자 폭은 줄었으나 전 분기(-14억원)와 비교하면 1분기 만에 손실 규모가 약 9배 증가했다.

유가증권 투자이익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괄한다. 회사별 기준에 따라 이자·배당 수익 등이 포함된다.

매매평가이익은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현이익과 보유 자산의 시세 변동에 따른 평가이익을 합친 것을 뜻한다. 매매평가이익과 유가증권 투자이익은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운용 성과를 반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가증권 투자이익에 의존해 온 캐피탈사들의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앞서 캐피탈사들은 올해 초 증시 활황 특수에 힘입어 대규모의 투자 이익을 거둬들였다. 신한캐피탈과 JB우리캐피탈은 1분기 유가증권 부문 수익으로 각각 2188억원, 357억원을 벌었다. 3분기와 비교하면 투자 관련 손익이 약 1년도 채 되지 않아 각각 62%, 98%씩 깎여 나간 것이다.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다. 올해 한때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이례적인 활황을 보였으나 현재 코스피는 4000대 중반까지 밀려 내려왔다.

투자 수익 급감은 캐피탈사 순익 타격으로 이어졌다.

신한캐피탈의 3분기 당기순익은 231억원이다. 전 분기 대비 29.7%,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JB우리캐피탈은 전년 동기보다 17% 줄어든 663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나캐피탈은 401억원의 순익을 냈다. 전년 동기(491억원)보다 18.3% 감소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신한캐피탈의 경우 조달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캐피탈사들이 투자 이익이 아닌 본업경쟁력 강화로 순익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일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캐피탈사들의 여신성 자산 기반 수익창출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정체 및 감소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투자금융 및 기업금융은 소매금융 대비 경기 민감도가 높고 실적 변동성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거시경제 변동성 확대 시 캐피탈사의 사업안정성 및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청약 신청 자격·가점 계산 '3분 서비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청약 3분 체크업' 서비스 제공

주택 청약에 앞서 신청 자격은 되는지 가점은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공급되는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가 본인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청약 3분 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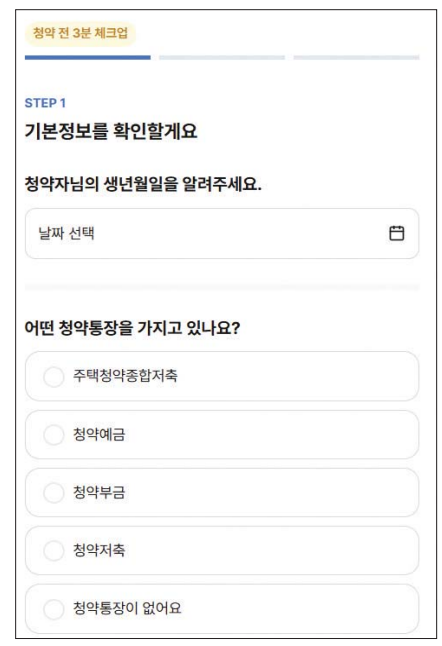
청약 3분 체크업은 청약 신청에 앞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유형과 자격, 순위, 가점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점검 결과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문구까지 생성해 준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청약통장 가입정보와 예치금, 가족 구성, 주택 소유 현황 및 이력, 거주기간 등 주요 정보를 단계별로 입력하면 된다. 각 단계별 질문에는 구체적인 기준과 안내가 제공돼 청약을 처음 준비하는 수요자도 복잡한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입력이 완료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과 일반공급을 포함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청약 유형별 주요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공급 청약 가능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유형별로는 조건이 달라 각각의 충족 여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까지 별도로 표시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예상 청약순위와 가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AI 기술도 접목했다. '내 결과로 AI에게 물어보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청약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AI에게 물어볼 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청약통장, 주택 소유 이력, 가족 구성 등 입력한 조건과 체크업 결과가 반영된 개인별 질문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용자는 생성된 문구를 활용해 생성형 AI에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청약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청약 3분 체크업' 서비스. /롯데건설

또한 사전점검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도 별도로 안내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신청 자격과 순위,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는 서초동 1448번지에 조성됐다. 총 835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35~46㎡ 14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35㎡, 37㎡A·B·C, 39㎡B, 46㎡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가깝고, 예술의전당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와 라운지,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준공 후 분양 아파트며, 일반공급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일반공급 1순위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지역·주택형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에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도 1순위 신청이 제한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3년 6개월 조합설립인가 112일 만에 완료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촉진' 적용
사업지 4곳 평균 172일만에 인가

서울 송파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12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통상 3년 6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마친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사전에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 정책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4곳(6132가구)이 정비구역 지정 후 평균 172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구역별 조합설립 소요 기간은 송파한양1차 112일, 독산2구역 141일, 사당17구역 211일, 신림8구역 223일이다. 4개 구역 모두 표준처리기한인 365일보다 142~253일 앞당겨 인가를 받았다. 당초 2032년이었던 착공 목표 시점도 모두 2031년으로 앞당겨졌다.

조합설립 기간 단축의 핵심은 절차의 병행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의서 징구,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조합설립 표준처리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며 사업장별 일정을 관리해 왔다. 또 '규제철폐 142호'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청장 판단에 따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8월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을 구역 지정 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추정분담금 이의신청 기간도 기존 60일 이상에서 30일로 줄이고, 이 기간에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lhj@